2010. 10. 4 제24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10. 4 제248호

문화 · 디자인

1.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런던 이야기 축제' 개최 (런던)

산업 · 경제

2.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전략 로드맵' 수립 (도쿄)

건강 · 복지

3. 홈리스에게 주거공간 제공 (뉴욕)
4. 식당의 위생상태를 표시하는 '스마일리 시스템' 도입 (베를린)

행정 · 재정

5. 시민사회단체에 市 소유건물을 저렴하게 임대 (영국 브리스틀市)
6. 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마련 (영국 뉴캐슬市)

방재 · 안전

7. 젊은이의 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 수거통' 설치 (런던)

도시환경

8. 민간 대형건물도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9. 도심 텃밭 추수 페스티벌 개최 (런던)
10. 최첨단 대체연료 차량 시범 운행 (영국 셰필드市)

도시계획 · 주택

11. 전문가 평가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도시계획방향 제시 (미국)
12. 저가형 주택 공급 확대 (런던)

문 화 · 디 자 인

1.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런던 이야기 축제' 개최 (런던)

❍ 런던의 문화와 역사를 재해석하는 '런던 이야기(Story of London) 축제'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열림. 2009년 6월에 처음 개최된 이 축제는 과거의 영광과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함. 2010년에는 100여 개 행사가 도시 전역에서 열리는데 특히 런던의 미래상을 제시한 행사가 많음.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음.

- 해설이 있는 순례 행사인 'London Without Bazalgette'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 하수도를 설계한 공학자 조지프 바잘게트의 족적을 따라 하수도 시설과 도시의 변화를 살펴 봄. 건축물 위주의 순례 행사에서 벗어나 도시기반시설을 역사와 함께 고찰한다는 점이 특이함. 도보 순례코스와 코스별 설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제공됨.

- 경제적인 관점에서 런던을 살펴보는 '미래도시: 은행가와 보너스' 강연회에서는 런던이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해온 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

- 1인 미디어 시대에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도 개최됨. '새내기 감독 다 모여라' 행사에서는 영화학도나 영화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도록 영화 전문가가 지원함. 행사 참가자는 편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동영상

편집, 시각효과 및 음향 삽입, 포스터 제작 과정을 거쳐 영화를 제작하게 됨.

- 이밖에 미래의 런던 모습을 주제로 일반 시민이 그린 작품 전시회,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런던의 패션과 음악을 소개한 사진 전시회, 런던의 대표적인 음악가 26명의 공연이 열림.

(www.london.gov.uk/priorities/art-culture/storyoflondon)

도심에 '그린 네트워크' 조성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도심부 공공공간을 활기 넘치는 공원과 이벤트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 쉬프 밸리 공원을 중심으로 공터와 소규모 공원을 서로 연결하고 도심지에 식물원을 건립함. 市는 이 사업에 최대 76만 파운드(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이 사업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녹색도시 셰필드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됨.

  · 도심 일부 지역은 실외 이벤트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함. 아름다운 도심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테라스식 계단을 설치한 원형극장을 만들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임. 이 극장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조성되고 주변 가로수도 기증받음. 1년 내내 오크나무, 밤나무, 유럽산 단풍나무 등을 볼 수 있는 식물원도 건립하고 구릉지에 야생식물도 심음.

(www.sheffield.gov.uk/sys_upl/templates/PT_Directory/)

2.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전략 로드맵' 수립 (도쿄)

❍ 도시의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함. 이에 도쿄都는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전략 로드맵'을 마련함. 이 로드맵에서는 중점 지원사업과 목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함. 중점 지원사업은 ① 에너지 고효율 조명 개발, ② 에너지 절약기기 개발, ③ 운하 수질 개선, ④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개선사업임.

- 로드맵에서는 중점 지원사업 선정 배경을 소개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동향과 개발 가능성 등을 분석함. 기술 개발 경비와 실용화에 필요한 지원책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음.

- 기술전략 프로그램에서는 중점 지원사업별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4건씩 선정하고 최대 2000만 엔(약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지원기간은 최장 2년이며, 都 내에 사업소나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9/22k99300.htm)

3. 홈리스에게 주거공간 제공 (뉴욕)

❍ 뉴욕市는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홈리스(Homeless)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함. 市 주택국은 주거지가 없는 가족 단위 홈리스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홈리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응급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함.

- 홈리스가 주거공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홈리스임을 증명하는 ① 임대인 증명, ② 살고 있던 주택에 새로 들어온 거주자 증명, ③ 퇴거명령서류를 제출해야 함. 市 주택국은 동거 가족을 ①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한 부부, ② 자녀가 있는 한부모, ③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동거하는 커플, ④ 임신 중인 여성으로 정의함.
  - 2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임시 거주지나 재정보조 담당자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성인가족 주택 지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음. 市는 성인가족을 ① 결혼 증명서가 있는 부부, ② 동거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커플, ③ 2인 이상 친척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함.

- 임시 주거지에서 살게 되는 홈리스는 ① 임시 주거지 내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고, ② 가구, 전자기기, 애완동물의 반입도 금지되며, ③ 市 주택국에서 제시하는 독립생활계획 지침을 따라야 하고, ④ 정부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⑤ 임시 주거지 상주 직원이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아

야 함.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주자격을 박탈함. 市는 또한 동영상, 안내장, 웹사이트를 활용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안전 지침을 제공함.

(http://home2.nyc.gov/html/dhs/html/homeless/famserv.shtml#path#path)

4. 식당의 위생상태를 표시하는 '스마일리 시스템' 도입 (베를린)

❍ 베를린市는 최근 판코우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일리 시스템을 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함. 판코우區는 2009년 초 식당과 식품가공업체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위생상태가 나쁜 식당 명단과 위생 불량상태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의 호평을 받음. 덴마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스마일리(Smily) 시스템을 본떠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업소에 '스마일리 스티커'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임. 2008년 제정된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약칭 '소비자 정보법')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 공개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 2011년 7월 1일부터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공공위생검사 결과가 市 식품위생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고 레스토랑과 식품가공업체는 검사결과표와 업소의 위생상태를 표시한 스마일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이 스티커는 위생기준 부합 정도에 따라 '매우 우수'에서 '불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어 표시됨. 베를린은 독일에서 스마일리 시스템을 실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됨.
  -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 학교와 회사의 구내식당, 거리의 스낵코너, 빵집, 정육점 등 모든 식품 관련 업소에서 식품을 어떻게 관리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됨. 또한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나 식품가공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됨.

- 이밖에 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국은 급변하는 식품가공 기술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과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정보법' 개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유전자조작 식품 생산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법 적용범위 확대, ② 식품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 ③ 요식업체와 식품가공업체 정보 공개 의무화 등임.

판코우區에서 사용 중인 스마일리 스티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9/24/311917/index.html)

(www.berlin.de/ba-pankow/verwaltung/ordnung/smiley.html)

행 정 · 재 정

5. 시민사회단체에 市 소유건물을 저렴하게 임대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150여 곳에 있는 市 소유건물을 시민사회단체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시책을 시행 중임. 임대기간도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하게 보장함.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다방면에 걸쳐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을 제공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市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센터인 세인트 워버그 센터가 최근 새 단장을 끝내고 문을 엶. 그동안 세인트 워버그 트러스트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구(舊)도심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사회센터가 되었고 시민단체에 회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침. 최근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市가 시행하는 특별임대 정책으로 市 소유건물을 장기간 빌리고 자금도 지원받아 건물 보수와 증축 공사를 시행함.

- 市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특별임대 정책은 확대 시행될 전망임.

(www.bristol.gov.uk/ccm/content/press-releases/2010/sep/find-out-more-about-managing-your-local-community-building.en)

6. 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마련 (영국 뉴캐슬市)

❍ 영국 뉴캐슬市는 과학중심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임. 市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사업세와 주민세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안을 마련함.

- 市는 핵심 지역의 성장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새로운 재원조달 계획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주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市 '핵심도시팀'에서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과학중심지역(市 서부 도심)의 도시기반시설에 3500만 파운드(약 632억 원)를 투자함. 사업세로 조성한 자금으로 도시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재생, 도심 활성화, 과학·지식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상업지역 발전을 도모함.

  · 이번 재정확충 계획은 핵심 지역에서의 고용과 주택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市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www.newcastle.gov.uk/press.nsf/newsbyid/D7BAED4171FCFB32802577A600346BA1?opendocument)

방 재 · 안 전

7. 젊은이의 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 수거통' 설치 (런던)

❍ 런던市 페컴區는 젊은이의 범죄 예방을 위해 런던 경찰국과 연계해 '흉기 수거통'을 교회, 쇼핑센터 등에 시범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 650개의 칼과 총을 수거함. 이 시범사업은 젊은이의 범죄를 막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흉기 수거단체'가 지역 경찰과 함께 진행함.

- 이 단체는 젊은이에게 칼이나 무기를 특수 제작된 수거통에 버릴 것을 호소함.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흉기 수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젊은이의 범죄율을 16% 줄임. 이에 런던市와 자치구, 경찰당국은 흉기 수거통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도 시 환 경

8. 민간 대형건물도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 기존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런던市는 市와 자치구 소유 건물에서 나아가 대학, 병원과 같은 민간 대형건물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함. 이에 런던대학교와 뉴햄대학 병원이 공공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개조하는 '재정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함.

- 재정비 사업에서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맞춤형 건물 개조안을 작성해 추진하게 됨. 특이한 점은 개별 건물주가 사업자를 찾아가 공정별로 가격 협상을 할 필요 없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평가, 견적 및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시행한다는 사실임. 이번에 참여하는 런던대학교와 뉴햄대학 병원은 市가 선정한 12개 전문 기업에서 입찰로 시공업체를 정함.
  - 市는 공공건물 외에 박물관, 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개조공사를 하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2009년 심사를 거쳐 선정함. 또한 공사에 필요한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서류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행정 비용을 최대한 줄임.

- 2010년 초 다양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비 사업 설명회에서 130여 개 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0여 개 기관이 조만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갈 예정임. 市는 재정비 사업으로 2025년까지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함. 재정비 사업으로 개조한 공공건물은 42개소에 달하며 에너지 소비량은 평균 2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런던개발청이 당초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복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재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꿈. 주요 사업 효과는 ①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②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할당량 제도 도입에 따라 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와 벌금을 줄이며, ③ 계약절차 표준화 등으로 건물정비 절차를 개선하고, ④ 건물 보수 전 과정을 통합 추진해 가장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인 건물로 개조함.

(www.lda.gov.uk/news-and-events/media-centre/press-releases/2010/)

9. 도심 텃밭 추수 페스티벌 개최 (런던)

❍ 런던市는 도심 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고 텃밭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 9월 리젠트공원 텃밭에서 추수 축제(Harvest Festival)를 개최함. 시민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가져와 전시하고 전문가로부터 농작물 재배와 관련해 지도를 받음. 市는 그동안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리젠트공원 텃밭은 농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Capital Growth'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조성됨. 신청자 중에서 텃밭 경작자로 선정된 시민은 보조금과 함께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교육받고 장비, 씨앗 등을 제공받음.

  · 이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2012개 텃밭 조성을 목표로 함. 대상지는 학교, 주택단지. 노숙자 숙소 지역 등임. 市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텃밭으로 활용하면 농작물 구매비용 절감, 커뮤니티 소속감

제고, 커뮤니티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 市는 추수 축제가 텃밭 경작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택협회와 협력하여 텃밭을 확충할 예정임. 런던 내 12개 자치구도 텃밭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함. 런던에서는 50여 개 초등학교가 텃밭을 조성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텃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열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10. 최첨단 대체연료 차량 시범 운행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쓰레기 재활용 관련 업체인 베올리아社와 협력하여 최첨단 대체연료 차량을 시범 운행함. 市는 2010년 9월 가스연료로 쓰레기 수거차량 10대를 운행하는 행사를 개최함. 이 차량은 처음에는 압축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바이오가스 연료로 대체함.

- 市는 지난 6개월간 유기농 쓰레기에서 추출한 바이오매탄가스 연료로 화물차 10대를 시범 운행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둠. 최근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추출한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함. 이 사업은 셰필드가 더 청결한 '녹색도시'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sheffield.gov.uk/sys_upl/templates/PT_Directory/)

도시계획·주택

11. 전문가 평가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도시계획 방향 제시 (미국)

❍ 경기 침체로 미국 중소도시가 대부분 재정난과 성장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전문가 집단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개발 자문에 응함. 이 프로그램은 'AIA 커뮤니티 디자인센터'가 중심이 되어 2005년부터 시작됨. 매년 도시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평가대상 도시에 3~10일간 머무르면서 해당 도시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시함.

- 2010년 9월 현재 도시 분야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평가팀 SDAT(Sustainable Design Assessment Team)로부터 44개 도시가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받음. 2010년 평가대상 도시는 알레게니 카운티, 알렌타운, 브리지포트, 쿠스 카운티, 포틀랜드이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도시의 제안서, 최종보고서, 관련 데이터를 볼 수 있음.

- 평가 프로그램은 ① 평가팀 구성, ② 평가 신청도시 제안서 제출, ③ 제안서 평가, ④ 평가대상 도시 선정과 사전 조사, ⑤ 대상도시 방문, 실사, 평가결과 보고 순으로 이루어짐.

  · 평가 프로그램 시행 1년 전에 미국 전역의 도시 분야 전문가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팀을 구성함. 평가팀은 주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부동산, 조경,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실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 젊은 전문가 1~2명을 포함함.

· 평가결과 보고는 대상도시 방문 마지막 날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됨.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나 정책 제안보다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유사 도시의 성공사례를 소개함.

- 이 프로그램은 계획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밀도 있게 다룸으로써 공무원이나 계획가는 물론 시민에게 도시 전반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www.aia.org/about/initiatives/AIAS075425)

저탄소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대폭 확충 (런던)

– 런던에서는 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성장해온 친환경 저탄소산업이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런던개발청에 따르면 2008~2009년 저탄소산업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10만 명에 달함. 향후 2년간 성장속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까지 1만 8000여 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전망됨.

· 런던개발청은 저탄소 고용·기술 프로그램을 실시해 실업자, 단순 노무직, 전문직 등 다양한 시민이 친환경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자치구, 관내 기업과 협력하여 실업 상태인 시민이 재취업하여 직장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www.lda.gov.uk/news-and-events/media-centre/press-releases/2010/)

12. 저가형 주택 공급 확대 (런던)

❍ 런던市와 런던 주택·지역사회청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저가형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음. 2009년 저가형 주택 1만 5000세대를 비롯해 '보금자리 주택' 2만 6000세대를 공급한 데 이어 2012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5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2만 세대는 저가형 주택으로 구성함.

- 지난 10년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주택에 의존해왔음. 저가형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보다 보통 25~30%가량 주거비가 저렴함. 市와 주택·지역사회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공급주체인 자치구, 주택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임. 주택·지역사회청은 주택·재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d-hca-help-1000-families-get-foot-property-ladder)